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에 들어감으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룸

(목요일 — 오전 1부 집회)

메시지 1

넷째 단계의 생명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충분히 성장한 단체적인 한 사람

성경: 창 1:26-28, 겔 1:5, 26, 엡 2:15, 4:13, 24

I.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비밀한 사상이 있다 — 창 1:26, 겔 1:5, 26, 요  
일 3:2하, 계 4:3상, 21:11하.

- A.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움직임의 수단이며, 하나님의 행정의 수  
단이다 — 행 2:32-33, 36, 빌 2:5-11, 히 2:9, 계 5:6.
- B.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네 생물이 사람의 모양을 지니고 있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  
의 모양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중심 사상과 하나님의 안배가 사람과 관련된다  
는 것을 가리킨다 — 겔 1:5, 26, 창 1:26.
  - 1. 에스겔서 1장에는 사람의 모양을 지닌 네 생물에 관련하여 세 가지 중점이 있다.
    - a.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난다. 사람의 모양을 지닌 그들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다 — 겔 1:28.
    - b. 생물들은 하나님의 움직임의 수단이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그들에게 달려 있다 — 겔  
1:12-21.
    - c. 생물들은 하나님의 행정의 수단이다 — 겔 1:26.
      - (1)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다 — 계 4:2, 6.
      - (2) 생물들이 사람의 모양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의 행정이 있는 것이  
다 — 렘 17:12.
  - 2. 교회가 반드시 표현해야 하는 그리스도는 보좌 위에 계신 사람이시다 — 계 3:21.
- C. 에스겔서 1장 26절과 창세기 1장 26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곧 하나님과 사람이 그 형상  
과 모양에서 서로 닮았다.
  - 1.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신다.
    - a.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사람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사람, 사  
람-하나님,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시다 — 행 7:56.
    - b. 육체 되심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  
시고 승천하셨다. 지금 보좌 위에 계신 그분은 여전히 사람이시다 — 요 6:62, 행 7:56.
  - 2.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보좌에 앉게 되셨다 — 행 2:36,  
빌 2:5-11.
    - a. 하나님은 항상 주님이셨지만, 이제는 한 사람이 주님으로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 — 계  
4:2-3, 5:6.
    - b.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신 후에, 하나님은 그분을 부활하게 하셨  
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히시어 온 우주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 — 행 2:36.

- D.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보좌에 오를 수 있도록 사람에게 공들여 일하시는 것이다 — 시 8:4-8, 계 3:21.
1.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에게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며 사람을 통해 왕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 시 8:4, 6, 창 1:26.
  2.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보좌로 이끄시어 우리를 보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 계 3:21.
    - a. 우리가 보좌에 앉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임할 수 없다.
    - b. 우리가 보좌에 앉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원수가 정복되지 않을 것이다.
  3. 하나님의 보좌에 대항한 사탄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좌로 이끌기를 원하신다 — 사 14:12-14.
    - a.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직면하신 가장 큰 어려움은 반역적인 세력이 그분의 보좌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자신의 보좌를 하늘들에까지 높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려고 하였다.
    - b. 하나님은 충분히 성장한 단체적인 한 사람을 얻는 것이 필요하시다. 이럴 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가 집행될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땅에 임할 수 있다 — 계 11:15, 12:5, 10.

**II.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단체적인 한 사람을 얻는 것이다 — 창 1:26.**

- A. 하나님은 그분의 표현을 위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런 후에 그분을 대표해서 그분의 원수를 처리하도록 사람에게 그분의 통치권을 주셨다 — 창 1:26-28.
- B.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람과 똑같이 되시고,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안에 일해 넣으심으로 사람을 그분과 똑같이 만들기를 갈망하신다 — 요일 3:2 하, 엡 3:17상.
- C.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물에 속한 새사람에 대한 그림이다. 이것은 옛 창조물이 새 창조물에 대한 상징이자 예표라는 것을 의미한다 — 엡 2:15, 4:24.
  1.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한 새사람이다 — 엡 1:9, 11, 3:9, 롬 8:28-29, 딤후 1:9, 엡 2:15-16, 4:22-24.
  2. 결국, 한 새사람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단체적인 사람이며, 이 새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이중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 엡 4:13, 24, 창 1:26-28.

**III. 주님의 회복의 목표는 충분히 성장한 단체적인 한 사람을 산출하는 것이다 — 엡 2:15, 4:22-24, 골 3:10-11.**

- A. 주님께서 그분의 회복 안에서 해 오신 일과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주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도록 주님 자신을 생명과 인격으로 가진 단체적인 새사람을 산출하는 것이다 — 엡 3:17 상, 골 3:4, 10-11.
- B. 한 새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도래하게 하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모셔올 것이다 — 계 11:15.
- C. “궁극적으로 성경은 교회를 한 새사람이라고 말한다. ... 새사람 안에는 그 인격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이 수준은 너무 높아서 더 이상 높을 수 없고, 너무 엄격해서 더 이상 엄격할 수 없으며, 너무 친근해서 더 이상 친근할 수 없다. 모두가 한 새사람이다. 이 한 새사람은 오직 한 인격을 갖고 있다. 이 인격이 바로 주 예수님이다.” (한 몸 한 영 한 새사람, 131쪽)

- D.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사람을 온전하게 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실 때이다. 이 새사람은 이 땅에 완전히 출현할 것이다 — 엡 4:24.
1. 세계정세는 단체적인 새사람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으켜져 왔다.
  2. 오늘날 모든 지방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단체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 — 엡 4:24.
  3. 한 새사람이 완전히 자라서 온전하게 될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때일 것이고, 이 단체적인 사람은 주님의 신부가 될 것이다 — 계 19:7.

**IV.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충분히 성장한 단체적인 사람에 이르려면, 우리는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 엡 4:13.**

- A.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의 마지막이자 가장 높은 단계,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완전히 자라신 단계이다.
- B.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광야에서의 여정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간 그 예표에 따르면, 우리의 영적 생명의 처음 세 단계는 요단 강을 건너기 이전에 일어난다 — 고전 10:6, 11.
- C. 우리의 영적 생명의 넷째 단계는 요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일어난다.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배운다.
- D. 셋째 단계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넷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한다 — 창 1:26.
- E. 넷째 단계에 있는 생명의 체험들은 몸을 인식함, 승천을 인식함,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다스림, 영적 전쟁에 참여함,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을 포함한다.

**사역의 밑줄에서 발췌**

**네 생물**

**사람의 모양을 지님**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수단임을 분명하게 계시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나타나실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표현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이시지만, 한 표현 곧 사람을 통한 표현을 필요로 하신다.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 표현이 없게 된다. 수많은 천사들은 결코 하나님의 표현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표현할 단체적인 한 사람이 필요하다. 당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결코 경시하지 말라.

사실 성경에는 오직 네 사람이 있다. 첫 사람, 둘째 사람, 새사람, 사내아이이다. 우리는 첫 사람이었으며,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이라고 불리신다(고전 15:47). 우리는 거듭남으로 새사람이 되었고, 이제 사내아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역은 새사람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사내아이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표현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의 표현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수 있다. 교회가 반드시 표현해야 할 그리스도는 보좌에 계신 사람이시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려면 오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사람이심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표현이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표현일 뿐 아니라 사람의 표현임을 뜻한다.

에스겔서 1장 26절은 주님께서 오늘날 보좌에 계신 사람이심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셔서 결국 사람이 되셨다. 생물들인 우리는 사람이신 그분을 표현한다. 그분은 보좌에 계신 사람이시며, 우리 역시 사람의 모양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대적을 꺾고 하나님의 왕국을 인류 안으로 가져오는 것도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에스겔서 1장의 이상은 네 생물이 사람의 모양을 지니고 있는 것에 관련하여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제시한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의 출현은 그들이 사람의 모양을 지닌 것에 좌우된다.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들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다. 둘째로, 이 생물들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수단이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그들에게 달려 있다. 그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이것은 그분의 움직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사람의 모양을 지닌 네 생물은 하나님의 행정의 수단이다. 에스겔서 1장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제시한다. 하나님의 보좌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러므로 이 보좌가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은 사람의 모양을 지닌 네 생물에 달려 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의 행정이 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놓고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움직임의 수단이며, 하나님의 행정의 수단임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람은 그와 같은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갈망이 사람을 얻는 것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나타나심과 움직이심과 행정의 수단으로 삼으시려고 바람, 구름, 불, 단쇠를 사용하시어 우리를 소생시키신다.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되고 사람의 모양을 지니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위한,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하나님의 행정을 위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에스겔 라이프 스타디, 5장, 59-62쪽)*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다(겔 1:26)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에스겔서 1장 26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그 형상이 사람의 모양 같은’ 분에 대해 말한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는 적어도 이중(二重)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로, 에스겔서 1장 26절과 창세기 1장 26절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이 있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말한다. 둘째로, 육체 되심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셨다. 사람의 본성을 지닌 그분은 사람으로서 인생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이제 하늘에서도 여전히 사람의 아들이시다(요 6:62, 행 7:56).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비밀스러운 사상이 있다. 하나님의 갈망은 사람과 똑 같게 되는 것이고, 사람을 그분과 똑같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과 연합시켜 사람처럼 되시고 사람을 그분처럼 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의도라는 뜻이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사람이시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온전한 사람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사람-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경배하는 분은 사람-하나님이시다. 더욱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신 33:1, 수 14:6, 시 90편 제목)이 되는 것은 하나님-사람, 곧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택함과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사람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쁜 일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그분의 갈망이다. 심지어 그분 자신이 사람이 되셨고, 오늘날 보좌에서 그분은 여전히 사람이시다.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우리 속으로 일해 넣으셔서 우리를 그분과 똑같이 만드는 것이며, 심지어 그 이상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와 똑같이 만드시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을 얻는 것이고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일해 넣는 것이다. 주님께서 여전히 보좌 위에 사람으로서 앉아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한다. 에스겔서에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아흔 번 이상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얻기를 갈망하시는지 보여 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 내고 하나님을 표현하려면, 사람이어야 하고 사람의 모양을 지닐 필요가 있다. 에스겔서 1장 5절은 네 생물이 사람의 모양을 가졌다고 말하며, 26절은 보좌에 계신 분의 모양이 사람과 같다고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사람의 모양을 지녀야 한다. 하나님을 살아 내고 하나님을 표현하려면,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고 사람의 모양을 가져야 한다. 사람의 모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 보좌에 계신 분과 네 생물은 모두 사람의 모양을 지녔다. 이것은 이 땅의 네 생물이 보좌에 계신 분의 표현임을 보여 준다. (*에스겔 라이프 스타디*, 12장, 141-143쪽)

### 넷째 단계 —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장

이제 우리는 영적인 체험의 넷째 단계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것은 영적 생명의 가장 높은 최종 단계로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장이다.

우리가 앞 단계들을 통과한 후에는, 우리 안에 모든 죄와 세상과 양심의 거리낌과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조성에 관련된 모든 어려움을 처리하고 일소하여 우리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게 된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시고, 우리 안과 밖 전체는 전적으로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자람으로 성숙함에 이르는 영적 생명의 가장 높은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가장 높은 단계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장”이라고 부른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에 들어간 기록을 통해 구약의 예표를 보기로 하자. 그들은 여행 초기에 홍해를 건넌으로써 속박의 땅 이집트를 떠나 홍해에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장사지냈다. 따라서 탈취하는 힘을 가진 세상을 벗어 버렸다. 그 후 그들은 아말렉과 더불어 싸웠는데 그것은 곧 육체를 처리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런 다음 그들은 광야에서 사십 년간을 방황했다. 성경에서 사십이라는 숫자는 시험과 고통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사십 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시험과 고통을 통해 그들의 육체의 각종 사악함을 드러내어 처리하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의 의도는 육체를 철저히 처리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체험도 마찬가지이다.

침례 받은 후 단 한 번만 욕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 수년 동안 하나님의 손안에서 처리받아야 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광야에 행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활이 어려움을 당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도 고갈되고 억압되며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시험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 욕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방황하던 세월을 마치자 하나님은 그들을 요단 강으로 인도하시어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하셨다. 한 면으로 그들은 실제적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며, 또 한 면으로 그들은 가나안의 일곱 족속과 맞서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광야에서 시험받는 날이 차고, 우리의 욕체가 어느 정도 처리되는 것을 배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영적인 요단 강을 건너게 하시며, 거기서 욕체가 완전히 견히고(길갈은 ‘견히다’의 의미임) 제거되게 하신다(골 2:11)는 것을 예표한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늘의 영역에 도달하게 되고, 이로써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상속하게 된다. 더욱이 우리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 전쟁을 체험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때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행을 하는 동안, 홍해와 요단 강이라는 두 물을 통과했다. 홍해는 바로와 그 군대를 장사하기 위한 곳이었고, 요단 강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장사하기 위한 곳이었다. 그들이 요단 강을 건넜을 때, 그들은 열두 개의 돌을 취했고, 또 열두 개의 돌을 강바닥에 세워 놓았다. 이 두 종류의 열두 개의 돌은 열두 지파를 나타낸다. 그것은 옛 열두 지파가 요단에서 끝나고, 새 열두 지파가 강을 건너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음을 나타낸다. 그들이 통과한 이 두 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다. 홍해의 물은 세상 권세를 끝내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방면을 상징하며, 요단 강물은 우리 옛사람을 끝내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방면을 나타낸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는 아말렉과만 싸울 수 있었지만, 그들이 요단 강을 건넜을 때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과 싸울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 생활의 시작에서 침례를 받은 후에야 욕체와 싸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갈 5:17).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절정에 달할 때에, 곧 우리의 욕체가 완전히 장사되고 견혀지며, 속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때에, 밖의 원수를 처리하기 시작하며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영적 생활의 처음 세 단계는 우리가 요단 강을 건너기 전에 일어난 것임을 이 모든 예표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 네 번째 단계는 우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일어난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요단 강 저편과 요단 강에서 처리되었다. 이제 우리는 강 이편에 와서 하나님의 어려움을 처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탈취한 가나안의 일곱 족속, 곧 하늘에 있는 영적인 어둠과 악의 권세(엡 6:12)와 싸워 그들을 진멸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영적 생명의 최후 단계이자 최고 단계이다. 각종 처리를 통과하고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 가담할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하신 모든 이들을 위해 이중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되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며,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며 하나님의 대적을 처리하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 생명의 셋째 단계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성령 곧 하나님 자신으로 충

만하게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의 대적을 처리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심으로 그분의 두 번째 목적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생명의 네 번째 단계에서 체험하게 될 일이다. 이 네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다섯 가지 체험, 곧 1) 몸의 인식, 2) 승천의 인식, 3)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림, 4) 영적 전쟁, 즉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옴, 5)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대하여 다룰 것이다. (*생명의 체험(하)*, 207-211쪽)